

하용조 목사의 짧은 묵상

인생의 배

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
인생을 살아 본 사람들의 결론은
"내 인생을 산 적이 없이 끌려 다녔다"라는 고백입니다.

인생 여정 동안 회사에 의해,
다른 사람에 의해 평생 노예처럼 끌려 다녔다는 것입니다.

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하는 한 마디 말은
'허무하다' 입니다.

자신이 인생을 이끌어 온 것 같지만
계획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고 있습니다.

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
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.

인생의 배는 내가 아니라
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.

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
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넘어서서
그분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.

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쳐 나기를 바랍니다.

- 하용조